

브라질, 바이오에너지 투자 강화

포르투갈 · 남미 · 아프리카와 협력 ... 에탄올 · 바이오디젤 증설

브라질이 바이오에너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 기존 계획인 15억달러보다 87% 가까이 늘어난 28억달러를 투자해 24억달러는 에탄올(Ethanol)과 바이오디젤(Bio-diesel) 생산에, 4억달러는 수송관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24억달러 가운데 2억1600만달러는 포르투갈,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Petrobras는 자회사인 Petrobras Bioenergy를 통해 포르투갈 에너지기업인 Galp Energia와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오디젤을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각각 30만톤, 25만톤 생산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및 소비는 세계 2위, 수출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량은 사상 최대치인 51억6000만리터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46%로 높였으며 최대 수요국인 미국수출은 28억리터를 기록했다.

브라질 에너지연구소(EPE)는 에탄올 수출량이 2017년까지 80억리터 이상으로 늘어나 브라질이 향후 10년간 에탄올 수출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바이오디젤 원료로 피마자, 해바라기, 콩 등 채유식물 외에도 동물성 지방과 튀김용 기름 찌꺼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개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3>